

기아, HEV 라인업 강화...EV시장은 대중모델로 공략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중장기 사업 전략 공개...향후 5년간 미래사업 포함 38조원 투자 2030년 판매목표, 430만대...친환경차 비중 58%로 올려잡아

기아가 전기차(EV) 수요 둔화에 맞서 하이브리드차(HEV) 라인업을 강화하는 중장기 전략을 내놔다.

다만 2027년부터는 전기차 판매 목표를 하이브리드차의 2배로 설정하는 등 전동화 전략의 궁극적 지향점은 전기차라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기아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2024 CEO 인베스터 데이'를 열고 주주와 투자자를 대상으로 중장기 사업 전략과 재무 목표를 공개했다.

올해 발표는 지난해 처음 공개한 '기아 2030 전략'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전기차 판매 둔화 등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친환경차 248만 2000대 포함 글로벌 판매 430만대 ▲전기차 판매 160만대 ▲목적기반모빌리티(PBV) 판매 25만대를 주요 목표로 내놓았다.

◇HEV 라인업 강화...EV 둔화는 대중화모델로 대응 = 먼저 기아는 글로벌 시장에서 2030년까지 전기차 160만대를 포함한 연 430만대를 판매하겠다는 계획은 유지했다.

친환경차 판매는 올해 76만1000대(24%)에서 2030년 248만2000대(58%)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제시한 2030년 목표(55%) 대비 3%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기아는 2026년까지 전기차 시장 성장 속도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하이브리드차 라인업 강화와 전기차 대중화 모델 투입을 대응 전략으로 내놔다.

기아는 지난해 출시된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포함해 올해 하이브리드차 라인업을 6종으로 늘리고, 2026년 8종, 2028년 9종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차종에서 하이브리드 모델을 운영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4분기 경영실적 발표 때 도입이 처음 언급된 셀토스 하이브리드에 더해 소형 하이브리드차 2종이 추가로 출시된다.

하이브리드차 판매량 목표도 2024년 37만2000대, 2026년 57만4000대, 2027년 60만2000대, 2028년 80만대, 2030년 81만7000대로 잡았다. 이러한 목표가 달성될 경우 올해 12%로 예상되는 하이브리드차 판매 비중은 2028년 19%까지 뛰어나게 된다.

기아는 전기차 판매 둔화에도 대중화 모델 투입을 통해 전동화 리더십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기차 판매량 목표를 2024년 30만 7000대, 2027년 114만7000대, 2030년 160만대로 설정했다.

2027년부터는 전기차를 하이브리드차의 2배 가까이 팔겠다는 뜻으로, 전기차 중심의 전동화 전략



기아 송호성 사장이 지난 5일 열린 '2024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기아의 중장기 사업 전략과 재무 목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아 제공>

을 재확인한 셈이다.

기아는 올해 상반기 출시되는 EV3를 시작으로 EV2, EV4, EV5 등 총 6종을 전기차 대중화 모델로 투입한다. 이중 EV2 출시계획은 이번 인베스터 데이에서 처음 공개됐다.

아울러 인도 등 신흥시장에서 카렌스EV 등 현지 특화모델 2개 차종을 선보인다.

전기차 대중화 모델 예상 판매량은 2024년 13만 1000대, 2025년 26만3000대, 2026년 58만7000대로 전망됐다.

◇중국공장·PBV로 중브랜드 대응...5년간 38조 원 투자 = 기아는 중국 공장을 통해 신흥시장 상품 경쟁력 강화하고, PBV를 통해 신규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전동화 전환을 맞아 본격화하는 중국 브랜드의 글로벌 진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먼저 기아는 중국 브랜드가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아시아-중동, 아시아-태평양,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커넥티드카 서비스 대상 국가를 2026년까지 총 74개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 적용 차종은 현재 5종에서 18종으로 늘리고,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장착률도 42%에서 63%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또 중국 공장을 활용해 2023년 8만대에서 그쳤던 신흥시장 판매량을 2027년 25만대까지 늘릴 방침이다.

기아는 2025년 중형 PBV인 PV5를 첫 출시하고, 이어 2027년 대형 PBV인 PV7도 선보인다.

이를 통해 2030년 총 25만대를 판매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이피트(E-pit)를 국내에 5400기 이상 구축한다. 북미에서는 아이오나를 통해 3만기를, 유럽은 아이오니티와 제휴로 1만7000기 이상을 마련한다.

기아는 올해 사업계획과 관련해선 작년 대비 3.6% 늘어난 320만대를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하고, 시장 점유율은 3.8%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전했다.

올해 재무 목표로는 매출 101조1000억원, 영업이익 12조원, 영업이익률 11.9%를 제시했다.

아울러 오는 2028년까지 미래사업(15조원)을 포함해 총 38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기존 5개년(2023~2027년) 계획 대비 5조원이 증가한 수치다.

미래사업 투자 비용은 전동화 65%, PBV 19%,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전환 8%, 미래항공모빌리티(AAM)·로보틱스 5% 등의 비율로 책정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현대차의 택시 전용 모델 '쏘나타 택시' 외관. <현대차 제공>

현대차 '쏘나타 택시' 출시

공간·편의성 강화...2.0 엔진·6단 자동변속기 탑재

현대차는 국내 내연기관 중형 세단 중 유일한 택시 전용 모델인 '쏘나타 택시'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쏘나타 택시는 강화된 내구성과 차별화된 상품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현대차는 쏘나타 택시가 일반 차량 대비 2배 강화된 내구 시험 과정을 거쳤으며 내구성을 높인 택시 전용 스마트스트림 액화석유가스(LPG) 2.0 엔진과 택시 전용 6단 자동변속기를 탑재했다고 설명했다.

이 택시에는 일반 타이어 대비 내구성이 20% 강화된 타이어도 장착됐다.

이와 함께 기존 쏘나타 뉴라이즈 택시 대비 축간 거리를 70mm 늘려 2열 공간을 더 넓어졌다.

현대차는 택시 용품 업계와 협업해 기존 택시 표시등과 차별화된 새로운 디자인의 '스마트 택시 표시등'도 함께 선보인다.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택시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차원이다.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ccNC'를 탑재하고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도 적용했다. 외장 색상은 아이스 화이트, 큐레이티드 실버 메탈릭, 팬텀 블랙 중 선택할 수 있다.

쏘나타 택시는 북경현대차유한공사(베이징 현대)가 중국에서 제작한 차량으로, 계약·출고 과정, 애프터서비스(AS) 등 구매 제반 사항은 내수 생산 차량과 동일하다. /김민석 기자 mskim@

금호타이어, 스텔란티스코리아에 타이어 공급

전국 서비스센터 33곳에

금호타이어(대표 정일택)는 지프와 푸조를 수입하는 스텔란티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 타이어를 공급한다고 8일 밝혔다.

스텔란티스코리아 산하 지프, 푸조 서비스센터는 전국 33개 곳곳으로 스텔란티스 브랜드 차량을 소유한 모든 고객에게 통합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금호타이어가 지프와 푸조 서비스 센터에 공급하는 타이어는 PCR(승용차), SUV 프리미엄 전 제품이다.

특히 금호타이어 크루제 HP71 제품은 부드러

운 주행성능과 정숙성을 강화시킨 고성능 프리미엄 컴포트 SUV용 타이어다.

기존 제품 대비 마모 성능과 스노우 성능을 20% 이상 높였으며, 와이드 그루브 설계를 통해 젖은 노면에서의 배수력을 향상시켜 조종 안정성과 제동 성능을 높임으로써 빗길 제동력을 향상시켰다.

임병석 금호타이어 한국영업담당 상무는 "스텔란티스코리아와의 타이어 거래는 금호타이어 제품의 품질과 기술력을 인정 받은 결과로, 공급 기회를 바탕으로 국내 시장에서의 지위를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현대차의 택시 전용 모델 '쏘나타 택시' 외관. <현대차 제공>

벤츠 코리아, 중형 SUV '더 뉴 메르세데스-AMG GLC' 출시

SUV 3세대·쿠페형 2세대 변경 모델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8일 중형 SUV 'GLC'의 퍼포먼스 모델 '더 뉴 메르세데스-AMG GLC'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더 뉴 메르세데스-AMG GLC는 SUV 모델인 3세대 완전변경 더 뉴 메르세데스-AMG GLC 43 4MATIC과 쿠페형 SUV 모델인 2세대 완전변경 '더 뉴 메르세데스-AMG GLC 43 4MATIC 쿠페'로 제공된다. 가격은 SUV 모델이 9960만원이며, 쿠페형 SUV 모델 가격은 5월 출시 시점에 공개된다.

더 뉴 메르세데스-AMG GLC 43 4MATIC과 GLC 43 4MATIC 쿠페 모델은 메르세데스-AMG의 '원맨 원엔진(One Man, One Engine)' 철학이 적용된 AMG 2.0리터 4기통 엔진(M139)과 AMG 스피드 시프트 MCT 9단 변속기의 조합으로, 최고 출력 421ps 및 최대 토크 51kgf·m의 강력한 성능을 발휘한다.

특히, M139엔진은 메르세데스-AMG 페트로나스 F1TM 팀의 기술을 차용해 전자식 모터가 장착된 배출가스 터보차저를 탑재했다. 이는 저속에서도 최대의 파워를 낼 수 있으며, 더욱 역동적이면서 효율성을 높인 주행이 가능하다.

더불어 48V 전기 시스템이 결합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돼 강력하면서도 효율적인 성능을 보여준다.

더 뉴 메르세데스-AMG GLC SUV 및 쿠페의 출력은 이전 세대보다 31ps 향상되었으며, 정지상태부터 시속 100km까지 도달 시간은 4.8초, 최고



더 뉴 메르세데스-AMG GLC 43 4MATIC.

속도는 시속 250km로 한층 폭발적인 주행 성능을 자랑한다.

또 주행 모드 및 노면 상황에 맞게 댐핑 시스템을 3가지로 조절할 수 있는 AMG 라이드 컨트롤 서스펜션(AMG RIDE CONTROL Suspension)과 최대 2.5도의 후륜 조향각을 지원한다. 이밖에 버튼을 눌러 스포티한 사운드 혹은 모터스포츠의 감성이 느껴지는 사운드 중 원하는 배기음을 선택할 수 있는 AMG 퍼포먼스 사운드가 기본 사양으로 탑재됐다.

더 뉴 메르세데스-AMG GLC 43 4MATIC

SUV는 이전 세대 대비 전장 및 휠베이스가 각각 80mm, 15mm 길어졌다. 이와 함께 외장 및 실내에 AMG 디자인 요소가 적용됐다.

동일한 외장 사양을 갖춘 더 뉴 메르세데스-AMG GLC 43 4MATIC 쿠페 또한 이전 세대 대비 전장 및 휠베이스가 각각 40mm, 15mm 길어졌다. 더 뉴 메르세데스-AMG GLC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64개 공식 전시장 및 공식 홈페이지(www.mercedes-benz.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

기아 K9 연식 변경 모델 '더 2024 K9' 출시

기아는 대표 플래그십 세단 K9의 연식 변경 모델 '더(The) 2024 K9' (사진)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K9의 내·외장 디자인을 고급화하고 신규 편의 사양을 적용해 상품 경쟁력을 강화했다고 기아는 설명했다.

외장에는 안정적이고 넓어 보이는 이미지를 연출하는 수평형 패턴의 라디에이터 그릴과 19인치 다크 스피터링 휠이 새로 적용됐다.

외장 색상은 신규 '페블 그레이' 색상을 포함해 총 5종이다. 내장 색상은 신규 '마션 브라운'과 '미스티 그레이' 등 총 4종이다.

아울러 기아는 더 2024 K9의 기본 트림부터 애프터 블로우(에어컨 습기 제거 기능), CF타입 USB 단자(전·후석 콘솔 내부) 등 고객 선호 사양 및 안전 사양을 새로 적용했다.

이외에도 기아 차종 최초로 동승석(조수석)에도 에르고 모션 시트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기아 관계자는 "더 2024 K9은 동급 최고 수준의 프리미엄 사양 신규 적용과 내·외장 색상 추가로 더욱 향상된 상품성을 갖추게 됐다"며 "기아 브랜드를 대표하는 플래그십 세단으로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일상에서 새로운 영감을 줄 수 있는 차량"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전국 수소충전소 1개소당 이용차량 203대

수소차 늘어 충전 인프라는 약화

지난 3년간 전국 수소 충전소 1개소당 수소차 대수를 의미하는 '차충비'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국토교통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국내 수소 충전소 1개소당 수소차 대수는 203대로, 지난 2021년 3월 차충비(180대)보

다 12% 증가했다.

차충비는 수소차 이용자들의 충전 접근성 및 이용성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다. 차충비가 낮을수록 충전 인프라가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국적으로 보면 지난 3년간 수소차 증가율은 충전소의 증가율보다 가팔랐다. 수소차 등록 대수가 3년간 180% (1만2439대→3만4872대) 증가하는 동안 수소 충전소는 149% (69개소→172개소) 증가하는 데 그쳤다. /김민석 기자 mskim@